


보 도 자 료

	◆ 2024. 7. 5. (금) 배포	
	◆ 총 3쪽 (본문 2쪽, 붙임 1쪽)	
	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.	
	김춘식 쇄빙선운영실장	☎ 032-770-8520
강민구 홍보실장	☎ 032-770-8631	
김창석 홍보실 선임행정원	☎ 032-770-8637	

극지연구소-국립목포해양대-STX마린서비스 MOU 체결

- 극지연구소(소장 신형철)는 국립목포해양대학교(총장 한원희), STX마린서비스(대표이사 오명재)와 4일(목) 인천항에 정박 중인 아라온호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
- 이번 협약은 극지 결빙해역 운항 선박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체결됐다. 협약식에는 신형철 극지연구소장과 한원희 국립목포해양대 총장, 오명재 STX마린서비스 대표이사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.
- 협약문에는 ▲아라온호 남·북극 극지역 항해 승선 지원 ▲우수학생 선발 및 파견 ▲결빙해역 항해술 교육·전수 ▲우수 양성인력 아라온항해사 활용 추진 등이 주요 사안으로 담겼다.
- 이번 협약에 따라, 극지연구소는 국립목포해양대학교에서 선발한 항해 분야 우수 학생에게 아라온호 승선과 결빙해역 운항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. STX마린서비스는 학생의 교육과 관리, 항해사 채용 등의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.

- 극지연구소는 국내 유일의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를 활용해 남·북극 바다를 연구하고 극지과학기지 보급·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. 기후변화 연구에서 차지하는 극지의 중요성과 늘어난 극지해양 연구 수요를 반영해 현재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도 추진 중이다.
- 이번 협약으로 국내에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결빙해역 운항 고급인력 양성 교육에 안정적 기반이 마련됐으며, 극지연구소는 향후 쇄빙연구선 운항을 위한 극지 전문 항해사 확보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.
- 극지연구소는 지난해 한국해양대학교와도 유사한 성격의 협약을 체결했으며, 이번 협약으로 극지역 운항 항해사 양성 체계를 더욱 강화하게 된다.
- 신형철 극지연구소 소장은 “기후변화 시대에 극지 바다를 누비며 연구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국가 경쟁력”이라며, “아라온호와 미래 차세대쇄빙연구선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관계 기관들과 긴밀한 협조로 우수인력 육성에도 앞장서겠다”고 말했다.

붙임. 극지연구소-국립목포해양대 -STX마린서비스 MOU 체결식

